

오늘 성경 말씀은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 가운데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보통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으면,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거나, 많아야 두 세 복음서에 기록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장소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 후에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몹시 바쁘게 일한 후 조금 쉬기 위해 떠났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그 후에” 라고 특정한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태와 누가는 이 사건이 일어난 대략적인 시점(세례 요한의 죽음 후)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마가는 좀더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 제자들과 바쁘게 사역하신 후 쉬를 갖던 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누가복음에 의하면 벳새다 지방의 빈들입니다.

당시에는 사람 숫자를 셀 때, 성인 남자만을 기준으로 하던 문화가 있었기에, 갈릴리 호수 주변 마을로부터 모여든 사람들의 숫자가 오늘 마태복음에서도 성인 남자만 오천명 정도였다고 하니까,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여자와 아이들까지 감안하면 만오천에서 이만명가량이 될 수도 있는 대규모 군중이었을 것이라고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세례 요한의 죽음 후에 예수님의 인기와 명성이 크게 올라가고 모든 관심이 예수님께 집중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즉흥적이고 자발적인 집회에 따르는 문제 중의 하나는 먹는 문제죠. 일단 사람들이 모

이면 먹는 문제가 큼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도 먹는 문제에 대해 제자들은 무리들을 해산해서 각자 마을에 들어가서 스스로 사먹게 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걸 합리적이고 타당한 대책이었죠. 예수님께서도 그러자고 하셨어도 될 텐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보여주시고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도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즉, 주기도문에 보면 앞부분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뒷부분은 인간적인 필요를 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는 내용이 끝나자마자 시작되는 인간적인 필요가 어떻게 되지요? 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먹는 문제가 제일 앞에 나왔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3가지 요소를 의식주라고 하지요. 입고 먹고 안전하게 사는 문제입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 가진게 이것밖에 없어요.” “오병이어.” 보리떡 다섯개와 물고기 두마리...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를 채워 주신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을 만류합니다. 사람들이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주님께서 혼자 산으로 피하셨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다니다가 강 건너편, 가버나움까지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육신의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그들이 주님을 열심히 찾기는 했으나, 그 이유는 자신들의 요구와 욕망을 채워줄 분으로 주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만류하다[카테코] 막다, 소유하다, 그들은 주님을 소유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신들만의 주님으로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 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주인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맞지만, 주님을 소유하는 삶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시도록

사용하시도록 맡기는 것이 맞는 것이죠. 내가 있는 곳에 혹은 있기 원하는 곳에 주님을 붙잡아 두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주님께서 가시는 곳을 저희들이 뒷따라가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병이어 이야기 뒷부분을 보면, 사람들을 삼삼오오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하늘 높이 들고 축사 즉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먼저 나누어 주셨고, 또 제자들은 받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때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늘 인간적인 계산뿐이라면 우리는 날마다 부족하고 쪼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틀린 것도 아니고 합리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믿음의 삶 또한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오병이어 말씀에서와 같이 오히려 처음에 그들은 턱없이 부족했었으나, 나중엔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남는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딱 맞게 양을 잘 좀 조절하시지, 왜 남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다 보니까 순간 분위기에 휩쓸리셔서 기적의 파워를 조절하지 못하셨던 걸까요? 그게 아니죠! 성경에 보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또 일깨워 줍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는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병이어 밖에! 안되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늘 부족한 것 같지만 배불리 먹는 즉, 순간 순간을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세요! 항상 부족해 보이는데도 범사에 감사가 나와요! 나온다니깐요! 이게 말장난 같아 보이지만, 정말 그래요!

사람은 도대체 얼마만큼을 가지면 배부를까요? 얼마큼 소유해야 만족하고 살까요? 일년에 5만불을 버

는 사람은 10만불을 벌면 만족할 것 같지만, 막상 그때가 되면 20만불 버는 사람들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먹는 것, 그들이 타고 다니는 차, 그들이 사는 집이 눈에 들어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되는거죠. 소유로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양 아흔아홉 마리를 가진 사람은 백마리를 채우지 못해서 밤잠을 설치기 마련임을 성경 말씀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입니다. 은혜에 풍성한 우리 하나님은 그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사소한 큰 것들”이라는 책을 쓴 영국의 헨리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럭비부 선수였던 헨리는 고등학교 2학년올 마치고 포르투갈로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어요. 안타깝게도 여행을 시작한지 다섯째 날, 헨리는 다이빙을 하다가 머리가 바닥으로 떨어져 전신마비가 되었는데요. 건강한 고등학생이 하루아침에 전신마비가 되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헨리는 그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후회보다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햇살을 느낄 수 있는 것에 대해,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헨리는 휠체어 앉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책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그린 그림은 영국 전역에 전시되었고 그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그가 쓴 책 마지막 부분에서 헨리는 사람들이 자기가 당연히 우울할 거라 여기고 마음이 어떠냐고 물어올 때, 이렇게 대답한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가 어때서요? 나는 아침마다 지금 인생에서 누리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눈을 뜹니다. 나는 날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 단계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 자신을 앞으로 밀어붙여야 하는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나는 늘 배우고 있고, 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나는 내가 무척이나 행운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풀이 죽어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행복해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다치지 않았더라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저 받아들일 수 있을 뿐입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인생은 훨씬 더 단순하고 행복해집니다. 모든 날이 좋은 날입니다.”

전신마비 장애인이 된 헨리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모습에 매몰되지 않고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니 불평해야 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이 보였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불행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보였습니다. 인생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매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매일 매일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2천년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여전히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